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161 - 186

## 구전서사를 통해 본 장애인 가족에 대한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문제와 함의\*

유수빈\*\* 서주원\*\*\* 임나린\*\*\*\* 박현숙\*\*\*\*\*

Jurkovic(2004)에 따르면 ‘부모화’란 어린 자녀가 부모 역할의 일부분을 담당하며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역할 역전 현상을 의미한다. 역할 역전으로 인해 ‘부모화’된 자녀는 일찍부터 의젓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의 내적 욕구를 무시한 강박적인 배려심을 가지는데, 심할 경우에는 심리적 병리 증상까지 보이게 된다. Jurkovic(1997)은 부모화의 유형을 △파괴적 부모화 △적응적 부모화 △비부모화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파괴적 부모화’에 주목하여 논의하였다.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나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상당수는 어릴 때부터 또래와는 달리 장애 형제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며 ‘어른 아이’, ‘부모화’ 경향을 띠고,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과중한 부담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그림 형제 민담 <열두 오빠>와 <오누이>의 서사 분석을 통해 장애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양상과 탈부모화 과정, 그리고 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 과정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장애-비장애 형제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서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 형제와의 관계 속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양상을 구전서사를 통해 다층적 논의를 펼쳤다는 점, 장애 형제와의 관계 속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및 건강한 공존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비장애 형제, 부모화, 구전서사, 탈부모화, 공존

\* 본 연구는 2024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주관한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본선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생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생

\*\*\*\* 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 학부생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강사

## I. 서론

Jurkovic(2004)에 따르면 ‘부모화’란 어린 자녀가 부모 역할의 일부분을 담당하며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역할 역전 현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이가 자신의 발달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 양육, 관심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해 반대로 자신이 부모를 돌보거나 부모를 대신하여 책임지고자 노력하는 ‘역할반전(Role Reversal)’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inverted child-parent relationships)”문제는 사회학에서도 일찍이 논의된 바 있다. Bowlby(1973)는 자녀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키면 이후 성인기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의 심각성을 언급하였다. (조은영, 2004 재인용) 이처럼 부모와의 역할이 반전된 ‘부모화’된 자녀는 일찍부터 의젓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의 내적 욕구를 무시한 강박적인 배려심을 가지며 이로 인해 심할 경우 심리적 병리 증상까지 보이게 된다. (이혜영, 최연실, 2016; Davies, 2002에서 재인용)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나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상당수는 어릴 때부터 또래와는 달리 장애 형제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며 ‘어른 아이’, ‘부모화’ 경향을 띠게 된다. (김다혜, 한재희, 2016; Byng-Hall, 2002)<sup>1)</sup> 특히 성인 초기에 속한 비장애 형제는 부모가 더 이상 장애 형제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과중한 부담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손주희, 박주희, 2019; Turnbull&Turnbull, 1990에서 재인용)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와 그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은 성인 초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년기의 비장애 형제는 장애 형제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나 우울, 불안 같은 내재화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백영순 박순길, 2023; 유신복, 손원숙, 2014에서 재인용)

Jurkovic(1997)은 부모화의 유형을 △파괴적 부모화 △적응적 부모화 △비부모화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파괴적 부모화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파괴적 부모화란 “자녀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장기간 가족을 돕는 것”을 뜻한다. Jurkovic(1998)에 따르면, 자녀가 적절한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적응적 부모화와 달리 파괴적 부모화는 자녀가 발달 단계상 필요한 행동을 억제하게 돼 불공정한 관계 양상을 지속하고, 자녀의 △성격 △또래 관계 △사회인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현주, 2021에서 재인용).

---

1) 안다혜, 정주리 (202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정서·사회적 영역에서 비장애 형제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괴적 부모화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탈부모화에 이르는 과정을 구전서사 분석을 통해 유형별로 살펴보고 장애인 가족 내 비장애 형제의 건강한 탈부모화를 위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야코프 루트비히 그림과 빌헬름 카를 그림이 정리한 독일민담 〈열두 오빠〉와 〈오누이〉다. 그림 민담은 표면적으로는 치료적 서사를 표방하지 않으나 상처 내지 갈등의 치유나 심리적 문제의 해결을 기본 화두로 삼는 이야기들을 다수 다루고 있다.(신동훈, 2013) 특히 〈열두 오빠〉와 〈오누이〉의 서사는 장애인 가족의 비장애 형제가 처한 어려움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유의미한 작품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서사적 화두’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서사적 화두’란 신동훈(2017)이 기존의 설화 의미 해석 방법론이 설화의 의미상 다양성을 밝히는 ‘화소 중심 분석법’과 순차구조에 따라 분석하는 ‘구조주의적 설화론’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제시한, 서사의 순차구조와 서사의 상징성을 분석 과정에서 모두 내포할 수 있는 통합된 방법론을 의미한다.

구전서사는 오랜 세월 구비 전승되어 온 이야기로, 인류 보편의 문제를 다루며 다의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문제와 그 맥락을 파악하는 데 적절한 도구이다. 신동훈(2010)은 〈심청전〉의 ‘심청’을 부모화된 인물로 정의하고, 부모화 양상과 강박적인 책무감을 설명함으로써 심청의 ‘아버지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버지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를 ‘일종의 강박적 책무감’이라고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신동훈(2010)은 심청을 강박적 책무감에 의해 자신의 몸을 팔아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겠다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해석하였고, 부모화된 인물이 가지는 이러한 강박적 책무감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동희(2010) 또한 〈심청가〉의 ‘심청’을 부모화된 아이의 전형적인 인물로 분석하였다. 이경하(2022)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전소설 〈심청전〉과 현대 영화 〈코다〉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심청전〉의 심청과 〈코다〉의 비장애인 딸의 희생을 재의미화하였고, 심청의 선택을 과도한 책임감이 이끈 자살로 해석하였다.

이렇듯 구전서사의 재해석을 통한 장애인 자녀의 부모화 문제를 다룬 연구는 적게나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장애인과 비장애가족의 부모화 문제를 조명한 구전문학 연구는 분석 대상 작품이 〈심청전〉으로 매우 한정적이고,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자녀의 부모화 문제만을 다루어 왔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구전문학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 없는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발달단계 및 심리적 성장을 자녀서사에서 이루어야 할 인물이 부모

서사 영역에 위치하게 되어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inverted child-parent relationships)를 형성한 내용의 구전서사를 통해,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문제 요인과 탈부모화 과정을 분석하고 장애 형제와 비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구전서사 속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문제

### 1. 작품 줄거리

#### 1) 열두 오빠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옛날에 어떤 왕과 왕비가 열두 왕자와 살고 있었다. 딸을 간절히 원했던 왕은 이번에 딸이 태어난다면 아들을 전부 죽이고 딸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것이라고 하면서 미리 관을 짜둔다. 딸이 태어나면 성탑에 붉은 깃발을 꽂아둘 것이라고 미리 일러둔 왕비 덕에 열두 형제는 깊은 숲속으로 가 목숨을 구한다. 10년간 마법이 걸린 집에서 사는 동안 이마에 황금별이 박힌 채 태어난 공주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쑥쑥 커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빨랫감에서 열두 장의 남자 셔츠를 발견한 공주는 왕비에게 물어 오빠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숲으로 향한다. 마법에 걸린 집에 도착해 오빠들과 만난 공주는 그때부터 살림을 꾸리며 오빠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 어느 날 공주가 식탁을 장식하고자 정원에 피어있는 열두 송이 백합을 꺾자 그 순간 오빠들이 모두 까마귀가 되어 날아간다. 슬퍼하는 공주 곁에 한 노파가 다가와 네 잘못으로 오빠들이 까마귀가 된 것이라며 오빠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웃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공주는 그 뒤로 키 큰 나무를 찾아 그 위에 올라가 앉아 실을 자으며 절대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이마에 황금별이 박힌 공주를 발견하고 한눈에 반해 청혼한다. 결혼한 후에도 공주는 오빠들을 위해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본 왕의 어머니가 공주를 웃지도 않는 요망한 마녀라고 헐뜯는다. 왕은 아내를 마녀로 모는 어머니의 말에 결국 아내를 사형시키는 데 동의하고 만다. 공주의 옷에 불이 붙으려는 순간 7년의 마지막 순간이 끝나고 열두 마리의 까마귀들이 하늘에서 날아와 사람으로 돌아온다. 오빠들은 불을 끈 뒤 공주를 껴안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공주는 그간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아내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된 왕은 기뻐했고, 그런 아내를 포함한 왕의 어머니는 끓는 기름과 독사로 가득 찬 통속에 갇혀 죽는다.

## 2) 오누이 (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계모 밑에서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어린 오누이는 오빠의 설득으로 함께 집을 나오게 된다. 갈증에 시달린 오빠는 샘물을 찾아 마시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누이는 ‘마녀인 계모가 샘에 저주를 걸었다’는 샘의 소리를 들었다. 그 물을 마시면 호랑이가 될 것이라는 샘의 소리를 들은 누이는 오빠를 말렸다. 두 번째 샘을 발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늑대가 될 거라는 샘의 소리가 들려왔다. 오빠는 이번에도 누이의 말을 듣고 참았다. 하지만 세 번째 샘에서는 사슴이 되고 말 거라는 누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시고 만다. 결국 사슴이 된 오빠를 누이는 평생 지켜주겠다고 깊은 숲속의 빈집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누이는 홀로 살림을 꾸리고 잠자리를 마련했다. 사슴이 된 오빠는 누이가 주는 풀을 먹으며 즐겁게 놀고 밤이 되면 누이에게 기대 잠에 들었다.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그 숲에서 큰 사냥을 벌였다. 사냥을 한다는 소식에 사슴은 누이를 졸라 사냥터로 향한다. 사냥꾼들에게 상처를 입어도 사냥터로 향하던 사슴을 왕이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온다. 누이를 보고 첫눈에 반한 왕은 청혼하고 누이는 사슴과 함께 지내는 조건으로 수락한다. 행복하게 지내는 세 사람의 소식을 들은 계모(마녀)는 질투에 휩싸여 왕비(누이)가 남자아이를 출산하는 때를 노려 욕실에 왕비를 가둬 질식사시키고, 몰래 데려온 외눈박이 친딸을 진짜 왕비인 것처럼 위장시켜 침대에 눕혔다. 왕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 왕자의 유모 앞으로 진짜 왕비가 나타났다. 요람 속 아이에게 젖을 주고 방구석의 사슴을 쓰다듬고 말없이 사라지는 진짜 왕비에 대해 유모가 왕에게 알린다. 직접 방을 지키고 있던 왕은 유모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발견한다. 첫날 밤엔 왕비를 그대로 보내지만 둘째 날엔 “그대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요!”하며 사라지려던 왕비를 붙잡는다. 그 순간 왕비는 신의 은혜로 생명을 되찾았고, 마녀와 딸은 왕이 연 재판에서 판결을 받는다. 마녀가 불에 타 재가 되자 오빠는 사슴에서 인간으로 돌아왔고 그 뒤로 오누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열두 오빠〉, 〈오누이〉의 서사는 크게 △보호자 역할의 부재 △부모화 진행 △부모화의 심화 △탈부모화와 주체성 회복의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서사 분석은 4단계의 순차구조에 따라 진행하되, 두 작품의 공통 화소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 2. 보호자 역할의 부재

〈열두 오빠〉와 〈오누이〉 서사의 첫 부분에 제시된 가정환경의 공통점은 ‘부모 역할의 부

재'이다. 특히, 부모가 '보호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를 배척하는 공통된 태도를 보인다.

먼저 <오누이> 부모의 양육 태도와 남매의 성장 환경부터 살펴보자.

*오빠가 누이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우리에게 좋은 날이라곤 없구나. 새엄마<sup>2)</sup>는 매일 때리기만 하고, 가까이 가면 발로 차서 쫓아버리지. 먹을 것도 고작 먹다 남은 딱딱한 빵부스러기뿐이니, 차라리 저 개가 우리보다 나아. 식탁 밑에 앉아서 수시로 맛있는 걸 얻어먹잖아. 우리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리 와, 같이 넓은 세상으로 나가자!”(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오누이>에서는 폭력과 방임을 일삼는 양육자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매일 때리기만 하고, 가까이 가면 발로 차서 쫓아버리지”라는 인용 부분에서는 어머니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먹을 것도 고작 먹다 남은 딱딱한 빵부스러기뿐”이라는 인용 부분에서는 자녀를 돌보지 않는 보호자의 방임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그로 인한 자녀의 성장 환경은 “차라리 저 개가 우리보다 나아”라는 아이들의 말처럼 비참할 지경이다. 더욱이 서사 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가정 내에서 아버지 역할의 부재를 짐작케 한다. 남매는 아버지의 역할 부재와 어머니의 역할 비건강성으로 인해 결핍을 가진 존재가 된다.

반면, <열두 오빠>에서는 아버지인 왕이 딸만 '편애'하고, 열두 아들은 배척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사랑의 과잉(딸)과 결핍(열두 아들)을 동시에 제공한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13번째 아이가 만약에 딸이면 12왕자를 모두 죽일 거요. 그러면 우리 공주가 왕국을 혼자 차지하게 될 테고, 훨씬 더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게 될 거요.”*

*그러고는 관을 12개 만들어 관마다 대팻밥을 가득 채우고, 죽은 사람이 베고 누울 베개도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관들을 들여놓은 방에 자물쇠를 채우고는 왕비에게 열쇠를 주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일렀어요. (그림 형제 (2022). 열두*

2) '계모'는 사전적 의미인 '외붓어머니'에 해당하지만 서사 속 '계모'를 '아버지가 재혼해서 얻은 아내'로 단정 지을 수 없다. '계모'는 친엄마일 수도 있고, 부모나 아빠, 할머니, 이모, 고모, 선생, 선배 심지어 미래의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신동훈, 2017). 이러한 다의성을 기반으로, <오누이> 이야기에서 단계를 거듭하면서 변화하는 계모의 상징성을 살펴보는 것 또한 서사 분석의 중요한 요인이다.

*오빠. 바로이복.)*

위 인용문은 왕이 지나치게 공주는 편애하고 열두 왕자(오빠)는 배척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태어날 아이가 딸이라면 열두 왕자를 모두 죽이겠다”거나 “관을 12개 만들겠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에서 그러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왕자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공주가 왕국을 혼자 차지하면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게 되기 때문”으로 설명하며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편애를 합리화하고 있다. 아버지로 인한 열두 왕자(오빠)의 내면의 상처는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왕비의 유약한 태도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왕비는 하루 종일 깊은 슬픔에 잠겨 앉아 있었어요. (중략) 하지만 아들이 계속 줄라대자 마침내 왕비는 그 방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물쇠를 열고 대팥밥과 베개가 놓여 있는 12개의 관을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벤자민, 이 관들은 아버지가 너와 너의 형 11명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 이란다. 이번에 내가 딸을 낳으면 너희를 모두 죽여서 여기 넣겠다고 하시는구나.”*

*왕비가 이렇게 말하며 흐느끼자 막내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울지 마세요 엄마.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멀리 떠날게요.”(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복.)*

왕비는 열두 왕자의 예정된 죽음을 슬퍼하나, “하루종일 슬픔에 잠겨있을”뿐, 대책을 세우거나 죽음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은 막내 아들 벤자민에게 맡겨진다. “막내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하며”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멀리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열두 아들을 보호해야 할 존재인 어머니조차 되레 아들에게 기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자녀를 편애하는 아버지,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열두 아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어머니는 건강하지 못한 전형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를 보여준다.

열두 오빠는 부모 역할의 부재로 인해 결핍을 가진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결핍은 분노로 바뀐다. 열두 오빠는 “계집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죽어야 하다니! 맹세코 복수하고 말 테다. 계집아이를 보기만 하면 보는 족족 다 죽여 버릴 거야.”라며 여동생에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다. 열두 오빠는 결핍과 분노의 책임마저 부모가 아닌 여동생에게로 향한다.

이처럼 두 작품은 ‘부모 역할의 부재와 결핍’이라는 공통 화소를 지닌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오누이〉에서는 부모의 폭력과 방임이 두드러지는 반면, 〈열두 오빠〉에서는 편애와 회피가 두드러진다. 두 서사의 양육 태도는 다르나, 이후 서사 전개에서 편의의 수혜자인 〈열두 오빠〉의 공주, 폭력과 방임의 대상이었던 〈오누이〉의 누이가 보이는 부모화 양상은 유사하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 사랑의 ‘과잉과 결핍’ 모두 부모화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3. 부모화 진행

부모 사랑의 과잉 혹은 결핍을 경험한 존재들은 부재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된다. 〈열두 오빠〉의 공주와 〈오누이〉의 누이는 공통적으로 낯선 환경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며 형제들에 대한 돌봄의식을 드러낸다.

*그들은 숲속으로 더 깊이, 가장 뻘뻘하고 가장 어두운 숲 한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마법에 걸린 작은 집이 있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그렇게 해서 오누이는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하루 종일 들판을 지나고 초원을 지  
나고 울퉁불퉁한 돌밭을 지났어요. (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열두 오빠〉와 〈오누이〉에서 인물의 부모화는 낯선 공간과 보호자의 부재 확인에서 시작된다. 열두 오빠와 오누이는 주어진 결핍과 트라우마의 환경에서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나, 탈출하여 도착한 곳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고립된 공간이다. 부모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숲’이라는 공간적 상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전해야 할 ‘집’이 오히려 생명 위협의 공간이 되면서 ‘숲’은 주인공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임시 공간인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공간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두 작품의 인물들이 낯선 공간에서 경험한 보호자의 부재는 ‘부모화된 아이’로서의 돌봄의식을 촉발시킨다.

두 작품의 서사는 공통적으로 낯선 공간에 고립된 상황에서 형제가 주체성을 잃게 되며 주인공의 부모화가 심화된다. 〈열두 오빠〉에서는 오빠들이 까마귀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오누이〉에서는 오빠가 여동생의 금기를 어겨 시슴이 된다. 오빠들의 ‘동물 되기’는 장애인 동가이자 동물운동가인 수나우라테일러가 제시한 ‘동물로의 전환(animal turn)’ 개념과 맞닿아 있다. 장애학에서 동물로의 전환은 장애와 동물의 경계를 지우고 장애의 동물성을 긍정하

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장애인과 동물이 겪는 억압의 유사성을 찾는 연대의 움직임의 일컫는다. (이예린, 2023에서 재인용)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주체성을 잃고 동물로의 전환을 겪은 오빠는 장애 형제의 서사, 그를 돌보는 여동생은 부모화된 비장애 형제의 서사로 해석할 수 있다. 철학자 스테파니 젠킨스는 장애 차별과 종차별의 교차점 탐구에서 인지장애인과 동물의 배제를 정당화해 온 기제에는 이성, 언어, 자율성을 인간성의 조건으로 놓고 의존적으로 간주되는 몸에 낙인과 멸시를 가하는 관점이 있었음을 언급했다(Jenkins et al, 2020), (이예린, 2023에서 재인용). 이는 <열두 오빠>의 열두 왕자(오빠)와 <오누이>의 오빠의 ‘동물로의 전환’ 원인이 된다.

동물로의 전환을 겪은 장애 형제는 세상으로부터의 단절과 사회적 억압을 경험하게 된다. 단절과 억압 경험은 장애 형제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스스로 상실하게 만든다. 구전서사에서 장애 형제의 능동성과 주체성 상실은 <열두 오빠> 속 열두 왕자(오빠)의 ‘까마귀 되기’<sup>3)</sup>와 <오누이> 오빠의 ‘사슴 되기’로 표상되고, 이들에 대한 세상의 단절과 사회적 억압은 ‘숲’이라는 고립된 공간으로 표상된다. <열두 오빠>에서 오빠들은 여동생이 7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아야만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열두 오빠가 까마귀로 지낸 7년은 인간이 동물로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 채 지내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누이>의 오빠가 사슴으로 변한 것은 여동생에게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여동생의 허락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은 ‘동물 되기’를 통해 겪는 능동성·주체성의 상실과 억압을 의미한다.

두 작품에서 오빠들의 ‘동물 되기’는 ‘마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마법’은 세상과 단절되고 억압된 고립의 ‘숲’에서 오빠들 스스로 일종의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의 낙인을 상징하며, 능동성과 주체성 상실을 상징한다. 또한, <열두 오빠>의 공주와 <오누이>의 여동생과 같은 비장애 형제에게는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억압된 존재의 보호자로서 부모화가 심화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마법에 걸린 그 집 앞에 있는 작은 정원에는 백합꽃 12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공주는 밖으로 나가서 꽃을 꺾어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빠들의 식탁에 한 송이씩 놓아주면 무척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소녀가 꽃을 꺾자마자 오빠들은 순식간에 모두 까마귀로 변해 숲 위로 멀리 날아가 버렸고, 집도 정원도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3) ‘까마귀’는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없어 까치의 집을 약탈한다. 이러한 까마귀의 속성을 근거로 오빠들의 ‘까마귀 되기’를 능동성과 주체성을 상실로 해석할 수 있다.

〈열두 오빠〉의 공주는 고생 끝에 오빠들의 숲속 오두막집을 찾아낸다. 결핍의 서사를 지닌 오빠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부모 사랑의 과잉을 상징하는 ‘이마에 금빛 별 하나 박혀 있는’ 공주의 빛나는 삶과 대비되는 햇빛도 잘 비치지 않는 작은 오두막집이다. 그런데 그곳 정원에 핀 백합꽃 12송이를 여동생이 꺾음과 동시에 오빠들이 까마귀로 변해 날아가 버리고 만다. 여기서 백합꽃 12송이는 열두 오빠의 자아를 상징한다.<sup>4)</sup> 여동생은 열두 오빠가 집을 떠난 것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으로 오빠들을 돌보고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부모에게 부정당한 내면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힘겹게 어둠의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오빠들의 유일한 삶의 버팀목인 자아정체성마저 꺾어버린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여동생은 선한 의도와는 무관하게 열두 오빠의 자아를 상징하는 백합꽃을 꺾어버린 존재이고, 열두 오빠는 여동생에게 꺾이는 존재가 되었다. 이는 〈열두 오빠〉 서사 도입부에 드러난 형제간 관계나 위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지속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살자. 그리고 너 벤자민, 넌 가장 어리고 약하니까 집에 남아서 집안일을 하도록 해. 우리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

*그들은 숲에서 토끼며 사슴, 새와 비둘기 등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잡아 왔고, 벤자민은 형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형들이 사냥해 온 짐승들을 요리했어요.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소녀는 요리할 때 쓸 장작을 모아 오고, 채소를 뜯어오고, 불 위에 올려 둔 냄비를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늘 오빠들이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곧바로 저녁상이 차려지곤 했답니다. 소녀는 집안도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했고, 침대에도 늘 깨끗하고 새하얀 이불이 덮여 있었어요.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첫 번째 인용문은 여동생과 재회하기 전 오빠들의 생활을 보여준다. 오빠들은 비록 숲속 마법의 집에 갇혀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직접 사냥하고 요리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두 번째 인용문에서의 열두 오빠가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부터 집안일의 주도권은 여동생이 가지게 된다. 여동생은 오빠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빠들의 자립성을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강화시켜 놓았다. 이

4) 신동훈(2020)은 백합을 오빠들이 힘들게 지켜온 자존감의 상징으로 해석한 바 있다.



는 부모화가 비장애 형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 형제의 주체성과 자립성 또한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조약돌 위로 줄줄 흘러가는 조그만 시냇물을 발견하자 오빠는 곤장 물을 마시려고 뛰어갔어요. 하지만 누이동생은 시냇물이 줄줄 흐르며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중략) 세 번째 시냇물에 이르렀어요. 누이동생은 시냇물이 줄줄 흐르며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를 마시면 사슴이 돼!

나를 마시면 사슴이 돼!

누이동생이 말했어요.

“아, 오빠, 제발 마시지 마. 그 물을 마시면 오빠는 사슴으로 변할 거야. 그럼 나를 두고 멀리멀리 달아나버리겠지!”

하지만 오빠는 이미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몸을 잔뜩 구부린 채 시냇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물방울이 입술을 넘어가기 무섭게 오빠는 새끼사슴으로 변했답니다. (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열두 오빠>에서는 열두 오빠가 먼저 떠나고 여동생이 뒤늦게 찾아갔다면, <오누이>에서는 남매가 함께 길을 떠난다. 남매가 임시로 머무는 낯선 공간에서도 남매를 보호해 줄 대상은 없다. 부모의 폭력과 무관심으로 상처받고 오빠의 뜻에 따라 함께 떠나는 여동생의 출발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된다. <오누이>의 여동생이 물을 마시려는 오빠를 말리며 “나를 두고 멀리멀리 달아나버리겠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동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여동생의 불안은 보호자가 없는 낯선 공간에서 오빠마저 자신을 떠나게 될까하는 두려움에서 촉발된다. 샘물의 물을 마실지 말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떠날 것을 제안한 오빠의 몫이었지만, 성장 과정에서의 결핍은 오빠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시킨다. 낯선 공간에서의 오빠의 불안과 두려움은 여동생보다 더 강하게 드러난다. 결핍된 상태에서 먼저 떠나자고 제안했던 오빠는 세 개의 샘물의 시험 앞에서 점차 능동성과 주체성의 약화를 보이다 결국 사슴 되기를 통해 상실하게 된다. 오빠의 사슴 되기는 앞으로의 여정에서 주체적인 판단력의 상실을 의미하고 이는 곧 여동생의 돌봄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갈증을 참지 못하고 샘물을 마신 뒤 사슴이 된 오빠로 인해 여동생은 마음의 준비 과정도 없이 오

빠의 보호자가 되어 버린다. 이처럼 <오누이>에서는 사슴이 된 장애 형제를 무방비 상태에서 책임지게 되면서 부모화 양상이 드러나게 된다.

#### 4. 부모화의 심화

두 작품의 서사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양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열두 오빠>와 <오누이>는 공통적으로 비장애 형제 서사를 지닌 여동생이 ‘자기희생’이 전제된 부모화 양상을 드러내며, 이는 ‘파괴적 부모화 유형’에 해당한다.

*갑자기 웬 할머니가 옆에 나타나 말했어요.*

*“이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네 열두 오빠들은 이제 영원히 까마귀로 변해버리고 말았구나.”*

*소녀가 울면서 물었어요.*

*“오빠들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7년 동안 병어리로 살면서 말을 해서도 웃어서도 안 되니까 말이야. 네가 단 한 마디라도 말을 하면, 7년에서 단 1시간이라도 모자라면, 네 오빠들은 모두 죽게 되거든. 그동안 고생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지.”*

*소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난 해낼 수 있어. 오빠들을 꼭 구해낼 테야.”*

*소녀는 키 큰 나무를 찾아 그 위로 올라가 앉았어요. 그곳에서 실을 지으며 절대로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어요.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열두 오빠>에서 오빠들이 까마귀로 변한 후에 등장하는 노파는 누이의 부모화된 자아를 상징한다. 노파의 “이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라는 말이 누이에게 향한다는 점에서 누이가 지닌 책임감과 함께 오빠들이 까마귀로 변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드러난다. 이후, “7년 동안 병어리로 살면서 말을 해서도 웃어서도 안 된다”는 부분에서는 지나친 자기희생적 태도와 함께 파괴적 부모화 양상을 드러낸다. 그리고 “오빠들을 꼭 구해”내겠다며 나무 위에 올라가 말을 하지도 웃지도 않는 모습은 여동생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 아닌 자기희생을 통한

파괴적 부모화가 된 보호자의 위치에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sup>5)</sup>

*“안심해. 사슴 오빠, 난 절대로 오빠를 떠나지 않을 거야.”*

소녀는 금실로 짠 양말 댕뎀을 풀어 사슴의 목에 감아주었어요. 그리고 갈대를 모아 부드러운 밧줄을 엮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슴과 자신의 몸을 연결했어요. 소녀는 사슴을 이끌고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중략) 소녀는 나뭇잎과 이끼들을 모아 새끼사슴에게 부드러운 잠자리를 만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먹을 나무뿌리며 딸기, 개암나무 열매, 그리고 사슴이 먹을 신선한 풀을 모아 왔어요. 새끼사슴은 소녀가 주는 풀을 받아먹으며 즐겁게 뛰놀았어요. 밤이 되면 누이동생은 피곤한 몸으로 기도를 올리고 나서 새끼사슴의 등에 머리를 얹고 누웠어요. 그렇게 사슴의 등을 베개 삼아 포근히 잠들곤 했습니다. 오빠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멋진 삶이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안 오누이는 외진 숲속에서 외로이 살았어요. (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오누이〉의 여동생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 오빠의 의식주를 챙기며 부모의 위치를 내면화한다. “오빠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은 여동생의 책임감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부드러운 잠자리를 만들어주거나 매일 아침 먹을 것을 구해오는 것을 통해 〈열두 오빠〉의 공주와 같은 자기희생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새끼사슴은 소녀가 주는 풀을 받아먹으며 즐겁게 뛰놀았”다는 인용문의 내용은 장애 형제의 주체성 상실과 퇴행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작품의 서사 속 부모화의 극대화 양상은 〈열두 오빠〉의 공주와 〈오누이〉의 여동생의 결혼 이후의 서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엄청나게 호화롭고 성대하고 즐거운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지만 신부는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어요. (중략)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왕의 어머니가 젊은 왕비를 중상모략하기 시작했어요. 왕의 어머니는 무척 사악한 여자였거든요. (중략) 왕은 처음*

5) 신동훈(2020)은 여동생의 침묵의 7년을 상처받은 형제들과 같은 입장이 되기 위하여 늘 혜택을 누리던 삶과 완전히 선을 긋는 행위 즉, 수혜자 여동생과 피해자 열두 오빠 사이의 심연을 메우는 시간으로 해석하였다. 7년의 침묵이 공주의 결혼 이후에도 지속되며, 7년의 침묵은 공주의 결혼생활을 파국 직전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열두 오빠와의 심연을 메우는 공주의 형제서사가 공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에는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늙은 어머니가 하도 끈질기게 몰아세우며, 왕비가 이런 저런 나쁜 짓을 했다고 계속 말하자 결국 넘어가, 왕비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고 말았어요.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열두 오빠〉의 공주는 제 삶을 책임지는 부부서사로 나아가는 통과의례인 결혼식에서조차 오빠들을 위한 침묵을 지속하며 말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부모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왕의 청혼과 결혼은 오빠들로부터 분리된 존재로서 자기서사를 만들어갈 기회이다. 그러나 부모화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결혼식만 올린 상황에서는 개인의 성장, 가족 내에서의 역할, 삶의 목적 그 어느 것에서도 통과의례를 통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특히 두 번째 인용문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등장했음에도 자신을 지키기보다 오빠들을 구하려는 마음을 다지며 자기희생적 면모만 반복할 뿐이다.

여동생의 파괴적 부모화 양상은 〈오누이〉에서도 두드러진다.

왕은 다정하게 아가씨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어요.

“나와 함께 성으로 가서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왕이 물었어요.

“아, 네. 하지만 사슴도 같이 가야 해요. 전 사슴을 버릴 수 없어요.”

아가씨가 대답했어요. (중략) 왕비는 아기를 요람에서 꺼내 가슴에 안고는 젖을 먹였어요. 그리고 작은 베개를 툭툭 털어 아기를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왕비는 사슴도 잊지 않았어요. 구석에 누워있는 사슴에게로 걸어가서 다정하게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여동생은 왕의 청혼에 “사슴도 같이 가야 한다”라며 “사슴을 버릴 수 없다”라고 표현한다. 결혼의 조건으로 사슴과의 동행을 내건 것이다. 여동생의 장애 형제에 대한 자기희생적 돌봄의 집착은 〈열두 오빠〉의 공주보다 더욱 강력하게 드러난다. 〈오누이〉의 여동생은 결혼 후에도 독립된 자기서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사슴으로 표상된 장애 형제의 삶에 귀속되어 파괴적 부모화의 삶을 지속하고 지향한다. 특히, 마녀에 의해 목숨을 잃은 후에도 자신의 아이와 동등하게 사슴을 챙기는 모습은 자기희생이 돋보이는 파괴적 부모화의 대표적 면모이다.

결혼은 한 인물의 독립과 성장 그리고 인격 통합을 상징한다. 동등한 자녀서사에 위치한

형제서사에서 독립된 주체로서의 부부서사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열두 오빠>의 공주와 <오누이>의 여동생은 여전히 형제와 분리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열두 오빠>의 공주가 7년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혼 후에도 말을 하지 않았고, <오누이>의 여동생이 사슴과 함께하는 조건으로 청혼을 승낙한 것처럼 말이다. 이후, <열두 오빠>에서는 시어머니, <오누이>에서는 마녀에 의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비장애 형제는 제 목숨을 지킬 내면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장애 형제를 위한 돌봄의 삶, 자기희생적인 삶에 투신한 나머지 자기를 방어하고 지킬 힘을 기르지 못한 탓이다. <오누이>의 여동생은 아기를 낳아 부모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형제를 자신의 아이와 동일하게 대하며 부모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두 서사의 순차구조와 유사한 상징성을 지닌 화소 분석을 통해 장애 형제의 주체성 상실 과정과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두 작품의 결말부 서사를 통해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와 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 III. 구전서사 속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 1.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두 작품의 비장애 형제의 서사가 자기희생으로서의 파괴적 부모화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열두 오빠>의 시어머니와 <오누이>의 마녀로 인한 공주의 ‘죽음 위기’와 여동생의 ‘죽음’은 모두 비장애 형제의 삶에 대한 주체성 파괴를 상징한다. 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공주는 죽음을 모면하고, 여동생은 새 생명을 얻어 소생하게 되면서 두 작품은 비장애 형제의 삶에 대한 주체성 회복을 그리는 서사로 나아가게 된다. 이와 동시에 장애 형제 또한 ‘인간으로 되돌아오기’를 통해 주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서사적 유사성을 지니는 두 작품은 결말부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및 장애 형제와의 공존 방식의 차이를 낳는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먼저 <오누이>의 결말부를 살펴보자.

*커튼 속에 숨어있던 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왕비에게로 튀어나가며 말했어요.  
“그대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분명하오!” 그러자 왕비가 대답했어요. “네, 난 당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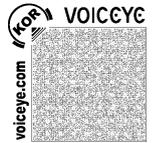
*아내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은총이 내려와 왕비의 생명을 돌려주었어요.  
왕비는 전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졌어요. (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오누이〉의 여동생은 죽어서도 아기와 사슴을 돌보기 위해 궁전으로 찾아온다. 왕은 이러한 왕비를 보고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분명하오!”라고 외친다. 이러한 왕의 외침에 왕비는 “난 당신의 아내”라며 사슴의 여동생(보호자)가 아닌 왕의 아내, 아기의 어머니 지위와 역할을 각성한다. 장애 형제의 부모화 단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제 삶의 주인공으로서의 주체적 첫 발화이다. 결혼한 이후에도 독립된 개체로 서지 못한 채 아이와 오빠를 돌보며 부모 서사로만 살아왔던 인물이 부부서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왕비는 못된 마녀와 딸이 자기에겐 무슨 짓을 했는지 왕에게 다 말했어요. 왕은 두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와 재판을 받게 했어요. 판결이 내려졌어요. 숲속으로 추방당한 딸은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고, 마녀는 불 속에서 비참하게 타 죽었어요. 마녀의 몸이 재가 되는 순간 사슴에게 걸렸던 마법의 주문도 풀렸어요. 오빠는 다시 인간의 모습을 되찾았고, 오누이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이후 남매는 행복을 되찾는다. 왕비(여동생)를 죽인 마녀와 그 딸은 처벌받고, 오빠는 사슴에서 인간으로 돌아온다. 앞 서사구조에서 인간의 동물 되기를 주체성의 상실로 해석한 것과 같이, 결말부에서 동물로 변한 존재가 인간으로 돌아오는 것은 주체성의 회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사슴이 된 오빠가 돌아오기 위한 전제 조건은 ‘계모의 소멸’이다. 앞서, 계모의 상징성이 서사 진행에 따라 변화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누이〉 서사 전반부의 계모는 ‘부모 역할이 부재한’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부모를 상징했다면, 이후 오빠가 사슴이 되는 과정에서의 주술성을 지닌 계모는 ‘주체성 상실의 계기가 되는 사회적 환경의 낙인이자 사회적 낙인에 따른 의존적 존재로의 자발적 낙인’을 상징한다. 따라서 결말부에서의 계모의 소멸은 ‘주체성 상실의 원인적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며 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오누이〉 서사구조는 계모 소멸과 동시에 동물이 된 형제의 인간화로 귀결되는 것이다.

한편, 〈오누이〉에서 계모의 상징성은 서사의 결말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동생의 내면과도 맞닿아 있다. 계모와 외눈박이 딸의 관계는 일방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계모



는 자기 삶의 지향을 외눈박이 딸에게 귀속시켜 외눈박이 딸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딸의 삶을 대신 설계해 나간다. 이는 사슴이 된 오빠를 통제하려는 부모화된 여동생의 모습과 닮아있다. 여동생의 외면은 왕의 아내인 왕비이지만, 내면은 부모화된 비장애 형제의 모습이다. 왕비가 된 여동생의 표면과 이면적 지위와 역할의 불일치성은 여동생을 제 자녀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형제의 부모화된 비장애 형제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의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 이런 가운데 왕비는 계모에 의해 질식사 당한다. 계모와 부모화된 여동생을 동일한 인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계모에 의한 왕비(여동생)의 질식은 극대화된 파괴적 부모화로 인한 독립된 가정의 어머니, 아내로서의 정체성 부정과 파괴를 의미한다. ‘질식사’는 부모화된 정체성에 잠식되어 제 삶의 정체성을 놓아버린 존재의 종말을 상징한다. 하지만 <오누이> 서사에서는 왕비(여동생)에게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

〈표 1〉 <오누이> 결말부 분석

단계	내용
①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해소의 전제 조건 : 부모화된 자아와의 분리
계모의 소멸	상징성 ① : 주체성 상실의 원인 상징성 ② : 부모화된 내면
② 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	회복의 전제 조건 : 주체성 상실의 원인 제거

여동생은 죽은 후 왕의 아내인 왕비로서의 정체성을 각성한 후 소생한다. 왕비의 소생과 동시에 부모화된 자아와 동일시되었던 계모는 소멸된다. ‘계모의 소멸’은 [표1]과 같이 비장애 형제인 여동생의 자기서사 성장을 방해했던 부모화된 자아와의 분리를 의미하며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와 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다.

다음으로, <열두 오빠>의 결말부를 살펴보자.

하지만 늙은 어머니가 계속해서 왕비를 헐뜯자 결국 왕도 어머니의 말에 넘어가 왕비를 화형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중략) 왕비가 말뚝에 묶이고 곧이어 시뻘건 불길의 혀가 왕비의 옷자락을 핏고 있을 때 만 7년의 기한이 다 찼습니다. 그 때 갑자기 공중에서 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12마리의 까마귀가 왕궁을 향해 날아와 쏜살같이 왕궁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까마귀들이 땅에 발을 딛자마자 그들은 왕비의 열두 오빠로 변했습니다. (중략) 그들은 불붙은 나무들을 헤쳐 불을 끄고 말뚝에 묶인 여동생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열두 오빠〉 서사의 결말부는 공주가 약속된 7년이 마무리되는 순간, 열두 오빠는 인간으로 돌아와 화형을 당하는 여동생의 목숨을 구해준다. 〈열두 오빠〉에서의 열두 오빠의 인간화의 시간성은 〈오누이〉 오빠의 인간화의 시간성과 다르게 나타난다.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성취 이후에 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이 일어나는 〈오누이〉와 달리 〈열두 오빠〉에서는 동물 형제의 인간화, 즉 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이 선행된다. 이러한 〈열두 오빠〉의 결말은 〈오누이〉와 대비되는 한계를 지닌다.

첫 번째 서사적 한계는 7년간의 공주와 오빠들의 서사적 공백이다. 작품 속에서 오빠들의 7년의 서사는 다루어지지 않고 여동생의 7년간의 침묵의 서사만 존재한다. 약속된 7년의 시간이 끝난 순간, 오빠들은 인간으로의 변화와 함께 나타난다. 앞서 ‘7년간의 침묵’을 여동생의 지나친 책임감의 상징이며 파괴적 부모화의 단면을 비추는 화소로 분석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오빠들의 주체성은 오로지 여동생의 책임감과 희생만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서사적 한계는 여동생의 탈부모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빠들의 주체성이 여동생의 책임감과 희생만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여동생의 부모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열두 오빠〉 결말부 분석

단계	내용
①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
② 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	회복의 전제 조건 : 부모화된 존재의 책임감

〈열두 오빠〉 서사의 결말부를 여동생의 시점에서 해석하면 여동생은 7년 동안의 침묵으로 표상된 책임감의 보상으로 동물 형제의 인간화, 형제의 귀환을 받아낸 것이다. 따라서 [표2]와 같이 장애 형제의 주체성은 회복되었으나 여동생에게는 비장애 형제로서의 탈부모화와 왕비로서의 정체성 회복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 2. 장애-비장애 형제의 공생과 공존

〈오누이〉와 〈열두 오빠〉 두 작품에서 주목해야 하는 주변 인물은 ‘왕’이다. 〈오누이〉와

〈열두 오빠〉 서사 결말부에서는 공통적으로 여동생에게 사랑에 빠진 왕이 등장하고, 여동생은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화 단계에서 왕과 결혼하게 되면서 ‘궁전’이라는 새 삶의 터전에서 새로운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곳에서 여동생은 ‘죽음’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왕과의 결혼으로 왕비가 된 〈오누이〉의 여동생이 겪는 죽음과 〈열두 오빠〉의 여동생이 겪는 모함으로 인한 죽음 직전의 위기 앞에 왕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두 작품의 결말은 차이를 보인다.

〈표 3〉 탈부모화 및 주체성 회복 과정

단계	결과	
	〈열두 오빠〉	〈오누이〉
위기 (위협하는 존재 등장)	부모화 극대화	부모화 극대화
왕의 역할 (부재/존재)	왕의 역할 부재 =사회/국가 차원의 노력 부재	왕의 노력 =사회/국가의 노력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탈부모화 실패	탈부모화
장애 형제의 주체성	서사의 공백: 주체성 회복 과정 부재	주체성 회복

왕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배경 모두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물로, 민담에서의 왕은 종교적 제의, 정치적 제도 등 집단의식의 지배원리의 표상으로 여겨진다. (이승섭, 2023) 왕의 가장 큰 역할은 국가 운영과 백성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어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집단의식 지배원리의 표상으로서의 ‘왕’은 집단을 상징하는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오누이〉에서 오빠가 사슴이 되면 자신에게서 도망칠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여동생은 깊은 숲속의 빈집으로 들어가 나뭇잎과 이끼로 오빠의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등 육체적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 왕은 이런 여동생에게 청혼하며 결혼 후에도 사슴과 함께 있어도 좋고, 사슴은 편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왕과의 결혼 후, 여동생은 내면의 부모화는 해소하지 못했지만, 육체적으로는 편안한 생활을 누린다. 이는 왕으로 표상되는 사회 시스템의 혜택이 비장애 형제인 여동생과 장애 형제인 사슴에게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왕은 왕비인 여동생의 시련과 죽음 앞에서 그녀를 외면하지 않고 지키고 각성시키는 노력을 통해 왕비의 소생 그리고 왕비의 탈부모화와 주체성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왕으로 표상되는 사회의 중요성 그리고 제도와 시스템의

필요성을 되새기게 한다.

반면, <열두 오빠>에 나타난 왕은 <오누이>에 비해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 <열두 오빠>의 왕은 여동생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후 위기 단계에서 여동생(왕비)을 위협하는 존재인 어머니가 부인을 포함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응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화형에 동의함으로써 아내인 왕비의 책임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왕비(여동생)의 부모화된 내면의 책임감에 육체적·정신적 고통까지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화형당하는 아내를 보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왕의 모습은 사회의 역할과 시스템 부재를 보여준다. 비장애 형제인 여동생 개인의 희생으로 장애 형제인 까마귀의 인간화를 통한 장애 형제의 주체성 회복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애 형제에 대한 책임은 비장애 형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그 무게감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장애 형제에 대한 책임은 장애 가족이나 비장애 형제 개인에게 온전히 지울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장애 형제가 회복한 주체성을 사회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열두 오빠>에서는 왕으로 표상되는 사회의 역할도, 사회 제도와 시스템도 부재하기에 개인에 불과한 여동생은 부모화된 책임감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으며, 탈부모화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열두 오빠>의 공주를 위협하는 시어머니와 <오누이>의 여동생을 위협하는 마녀가 등장한 위기 상황에서의 왕의 태도와 역할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오누이>의 여동생이 왕비로서의 자기서사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지지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고, <열두 오빠>의 공주가 끝내 침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왕이 왕비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로부터 지지받는 인물과 그렇지 못한 인물의 서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두 작품 속 왕의 역할과 태도의 차이는 비장애 형제와 장애 형제 서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와 장애 형제와의 공존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사회 역할 그리고 사회 제도와 시스템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부모님은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네가 엄마처럼 (형제를) 돌봐야 해’라기 보다는 ‘네가 누나로서 해줄 수 있는 데까지만 책임을 지라’고 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신경도 많이 써주셨다.”*

*“공교육에서는 수업은 도움반에 분리돼 빠지고, 어떤 수업은 참여하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형태다. 그런데 대안학교에서는 서로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거부감이 덜한 편인 것 같다.”*

“현재 하는 일이나 꿈에 형제의 영향은 없었다. (형제의) 엄마가 아닌 형제로서 분리되고 독립된 존재라고 느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분야의 진로 (미술)을 택했다. 만약 크게 하고 싶었던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었다면 사회복지사 쪽으로 갔을 것 같다.”

위 인용문은 두 살 터울의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는 비장애 형제 A 씨와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이다.<sup>6)</sup> A 씨는 장애 형제를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모로서의 자아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선택의 기반에는 돌봄에 대해 부모가 큰 책임감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대안학교 재학 경험으로 통합교육을 경험했던 점 등 주변 사람들과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가 도움이 되었다고 증언한다.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와 장애·비장애 형제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서는 <오누이>의 왕으로 표상되는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김수정 등 (2024)은 비장애 형제의 돌봄 부담 해소와 자존감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가족과 사회의 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장애·비장애 형제의 공존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제도적 실천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전소정(2023)이 6명의 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담에서 한 참여자가 “이번 심층 인터뷰는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경험을 했고 평상시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거나 말하고 싶어도 적절한 대상이 없었던 원가족에 대한 자기 생각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밝히며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치유의 방안을 모색하고 그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의 역할 또한 필요하다.

지금까지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양상이 드러나는 <열두 오빠>와 <오누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을 통해 탈부모화 및 주체성 회복의 필요성과 조건에 관해 논의하였다. 특히, 두 서사의 결말부 차이가 사회로 표상된 ‘왕’에게서 기인하였음을 통해 탈부모화 및 공존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결론에서는 해당 연구의 시사점 및 기대 효과를 논하기로 한다.

6) 연구팀은 2024년 7월 7일에 A 씨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 가족 내 비장애 형제의 부모화 양상에 주목하여 논의를 이어갔다. 구전 서사의 심층 분석을 통한 양상 발견 및 해결책 제시를 방법론으로 하여 탈부모화 및 장애·비장애 형제의 공존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부모화 양상의 네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이중 파괴적 부모화에 주목하여 <열두 오빠>와 <오누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I. 본론 1장에서는 두 작품의 공통 화소를 통해 장애인 가족 내 비장애 아동의 강박적 책임감을 발견하였고 2장에서는 결말부 차이점에 주목하여 가족을 둘러싼 공동체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오누이>에서 장애·비장애 형제의 공존이 가능했던 근거로 사회를 상징하는 인물인 '왕'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탈부모화 및 공존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 긍정을 넘어 가족 단위의 사회적 복지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 비장애 형제의 관계 속에서 비장애 형제의 탈부모화 문제를 다뤄 다층적인 논의를 펼치고자 하였다. 특히 그 방법론으로 구전 서사 분석을 선택하고 구전 서사가 지닌 해석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구전 서사가 조명하는 장애, 비장애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구전 서사의 다의적 해석 가능성은 장애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가 장애·비장애 형제간 관계 개선 및 장애, 비장애 형제 가족의 행복한 공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비장애 형제의 모습을 구전 서사 속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가 더욱 많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그림 형제 (2022). 열두 오빠. 바로이북.
- 그림 형제 (2022). 오누이. 바로이북.
- 김귀자 (2002). 자폐성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자매와 일반학생의 자아개념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 김다혜, 한재희 (2016). 지적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자매의 심리적 현상. **상담학연구**, 17(5), 357-375.
- 김수정, 김동일, 이재호 (2024). 성인 장애인 가족의 가족탄력성과 가족 외부의 사회적 지지가 비장애 형제자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58(4), 81-101.
- 김효현 (2019). 부모화된 청소년을 위한 문학치료 사례연구. **문학치료연구**, 53, 79-132.
- 김효현 (2021). 부모화된 청소년의 탈부모화를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설계 - 〈바리데기〉 설화를 바탕으로. **문학교육학**, 70, 9-38.
- 백영순, 박순길 (2023). 장애를 가진 형제를 둔 비장애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4), 203-216.
- 손주희, 박주희 (2019). 성인초기 비장애 형제자매의 부모화 경험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 **Human Ecology Research(HER)**, 57(3), 445-457.
- 신동훈, 고전과출판연구모임 (2010). 프로이트, 심청을 만나다.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신동훈 (2013). 문학치료에서 외국설화의 활용 가능성 탐색 - 그림형제 민담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27, 9-46.
- 신동훈 (2017). 서사적 화두를 축으로 한 화소·구조 통합형 설화분석 방법 연구. **한국구비문학회**, 구비문학연구, 46, 35-84.
- 신동훈 (2020). 옛이야기의 힘. 서울: 나무의 철학.
- 안다혜, 정주리 (2021). 성인 비장애 형제자매의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 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 725-743.
- 양유리 (2015). 미술치료가 장애아동을 둔 비장애 형제의 우울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5(2), 107-121.
- 유미향, 원희량 (2023). 발달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아동의 퇴행 행동 및 우울, 불안 개선을 위한 미술치료 질적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30(6), 1589-1610.

- 유신복, 손원숙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정서조절 및 공격성간의 구조적 관계. **教育心理研究**, 28(1), 205-224.
- 이경순, 윤채영 (2017). 비장애 형제의 상담연구동향 분석: 1999-2015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7(2), 199-220.
- 이경하 (2022). 장애인과 보호자의 관계로 다시 읽는 <심청전>-영화 <코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6, 39-58.
- 이동희 (2010). ‘부모화된 아이’를 위한 <심청가>의 문학치료적 의의. **口碑文學研究**, 30, 241-270.
- 이민경 (2019). 장애인 가족 돌봄부담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연구-돌봄지원의 조절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44, 121-148.
- 이승섭 (2023). 민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心性研究**, 38(1), 161-200.
- 이윤미 (2015).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 관련 연구동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이예린 (2023). 지적장애인, 동물화, 그리고 동물로의 전환 - 장애해방과 동물해방의 교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장애학**, 8(2), 11-41.
- 전소정 (2023). 성인 비장애 형제자매의 생애 경험과 관계 경험이 미치는 가족인식에 대한 이해 및 지원방안 모색. **발달장애연구**, 27(2), 135-159.
- 조은영, 정태연 (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여성**, 9(1), 43-62.
- 최하나, 이행숙, 한유진 (2023). 신체접촉중심 집단놀이치료가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8(2), 45-64.
- 최현주 (2021). 형제자매의 장애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화 유형과 거부민감성 및 우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715-1737.
- 홍은주, 유금란 (2020). 부모화된 자녀의 탈부모화 경험 연구: 성인초기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4(1), 97-132.

논문 투고 : 2024.10.14.	논문 심사 : 2024.12.2.	게재 확정 : 2024.12.11.
---------------------	--------------------	---------------------

Abstract

# Parentification of non-disabled siblings in families with disabled members

## : Insights from oral narratives

SuBin Yu\*, JuWon Seo\*\*, NaRin Lim\*\*\*, HyeonSuk Park\*\*\*\*

According to Jurkovic (2004), “parentification” refers to a phenomenon where young children take on part of the parental role and care for family members, leading to a reversal of roles. Children who are “parentified” due to this role reversal often display maturity and competence from an early age, but they may also develop a compulsive sense of care that neglects their own inner needs, which can result in psychological pathology in severe cases. Jurkovic (1997) classified types of parentification into three categories: destructive parentification, adaptive parentification, and non-parentification. This study focuses on “destructive parentification.”

Many children of parents with disabilities or non-disabled siblings of disabled brothers feel an excessive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s their disabled siblings from a young age, leading to a tendency to become “adult children” or “parentified.” This sense of responsibility to take on parental roles can result in overwhelming burdens and feelings of depression.

---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nkuk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nkuk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nkuk University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narratives of Grimm's fairy tales <Twelve Brothers> and <The Brother and Sister> to understand the patterns of parentification among non-disabled siblings in relation to their disabled siblings, the process of de-parentification, and the recovery of agency for the disabled siblings. Furthermore, it narratively analyzes the social roles necessary for coexistence and symbiosi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sibling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multi-layered discussion of the parentification patterns of non-disabled siblings in relation to their disabled siblings through oral narratives, as well as its presentation of conditions for de-parentification and healthy coexistence.

**Keywords:** non-disabled siblings, parentification, oral narrative, de-parentification, coexistence